

■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출입명부 ‘외 ~명’ 이젠 안돼요”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업주 300만원·이용자 10만원  
도서관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종사·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이 5일부터 의무화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제주도는 지난달 29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며 4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기본방역수칙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에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시 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

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다.

수칙 개수 뿐 아니라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됐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일괄 금지된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이다. 또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

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일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게 돼 있었으나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한 후 '외 n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름을 적지 않으면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강다혜기자 dhkang@halla.com



비오는 날, 운치있는 숲길 걷기 제주 전역에 비가 내린 4일 제주도 절물자연휴양림에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관광객들이 비옷을 입고 숲속을 걸으며 숲의 운치를 만끽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도외發 코로나19 확진 잇따라

4월들어 관광객 및 수도권 방문 이력 6명 확진판정

제주지역에서 관광객 등 입도객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들어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날짜별로는 1일 4명(제주 628-631번), 2일 1명(632번), 3일 2명(633-634번) 등이다. 이로써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34명으로 늘었다. 특히 4월 들어 신규 확진된 7명 중 6명이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수도권을 다녀온 뒤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628번과 629번은 제주도민으로, 서울 강남

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달 26-28일 까지 제주에 머물다 서울로 돌아간 후, 그달 31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630번은 관광객으로, 지난 1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에 온 뒤 발열자로 분류돼 공항 위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됐다.

631번은 628번의 접촉자로 지난 1일 진단 검사를 받고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632번은 지난달 29일 입도한 관광객으로, 서울시 성북구 확진자의 접

촉자다. 여행 사흘째인 지난 1일 서울 성북구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다.

633번은 부산시 서구 확진자 가족으로, 지난 1일 제주에 입도했다. 이후 제주에 머무르던 중 2일 가족의 확진 소식을 듣고 이튿날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634번은 서울시 노원구 확진자 가족으로, 일행 3명과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634번은 입도일인 2일 서울시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고 3일 진단검사 결과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다혜기자

## 1일 2곳꼴 방역수칙 위반 적발

제주시, 4개월 동안 음식점 등 241개소에 '행정처분' 6곳은 고발조치... 대부분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

제주시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2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코로나19 취약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4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차 위반으로 시정조치만 이뤄진 업소는 일반음식점 199개소, 홀덤펍 1개소, 휴게음식점 9개소, 유흥주점 7개소, 단란주점 5개소, 콜라텍 1개소

다. 2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일반음식점 11개소, 목욕업(매점 운영) 1개소였다.

이러 영업금지 기간에 영업을 강행한 유흥주점 3개소와 단란주점 3개소는 고발됐고, 일반음식점 1곳은 3차례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정지 전 단계인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적발 유형은 대부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다. 제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됨에 따라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에 유흥업소 905개소에 대해 5인 이상 모임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목욕장업 86개소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코로나19 전수검사, 정기권 신규발급 금지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게스트하우스 내 파티 개최 행위 금지에 대한 방역지침 안내 및 야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는 1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이행하도록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 성추행 의혹 제주시 간부 공무원 파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제주시청 간부가 파면됐다.

2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도인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소속 A 전 국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로, 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의 50%가 감액된다.

A 전 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까지 제주시청 사무실 등에서 부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제주시지방법원은 A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아울러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지난 1월 A 전 국장이 공직자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 제주도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송은범기자

## 흥기 협박 50대 실형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흥기로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시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8시 쯤 서귀포시 식당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자 맞은편 식당서 흥기를 들고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 길 잃음·실종사고 대비 드론 추가 도입

### 제주소방서 "수색 역량 강화"

제주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잦아지고 길 잃음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제주소방서는 실종사고 및 길 잃음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와 119인명구조견을 활용해 실종사고 대응 특별 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길 잃음 및 실종사고 건수는 최근 3년간(2018~

2020년) 총 39건이며 이 중 등산객 및 고사리 채취객 관련은 20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지난달 23일 절물자연휴양림을 찾은 도민 4명이 길을 잃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이에 제주소방서는 실종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소방무인비행장치 1대와 고성능 전술드론을 올해 안으로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 119인명구조견(초롱이)의 관리·훈련을 통해 실종자 수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 민주노총 3일 노동자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4·3 민주항쟁 73주년을 기리기 위해 제주시청 광장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분단을 딛고 노동해방을 향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의 과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식사과와 회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4·3민주항쟁을 계승해 노동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경진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리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 2-7년생 허균,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         |         |
|---------|---------|
| 유 라 조 생 | 1,2,3년생 |
| 감 명     | 1,3,4년생 |
| 탱 자 묘 목 | 1년생     |
| 성하홍조생   | 1년생     |
| 성 전 온 주 | 1년생     |
| 천 해 향   | 4,5년생   |
| 황 금 향   | 4,5년생   |

## 한림종묘

010-3690-2453

## 감귤 신품종 분양

###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 아미나스

조 생

-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상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

##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